

설렘 가득한 시각을 응원합니다!

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은?



처음이라는 단어는
언제나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.



첫 인상



첫 사랑



첫 직장



그렇다면 청년들은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 진출하는 시기를
언제로 생각하고 있을까요?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**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와 정책방안**을 연구하고자
청년 2,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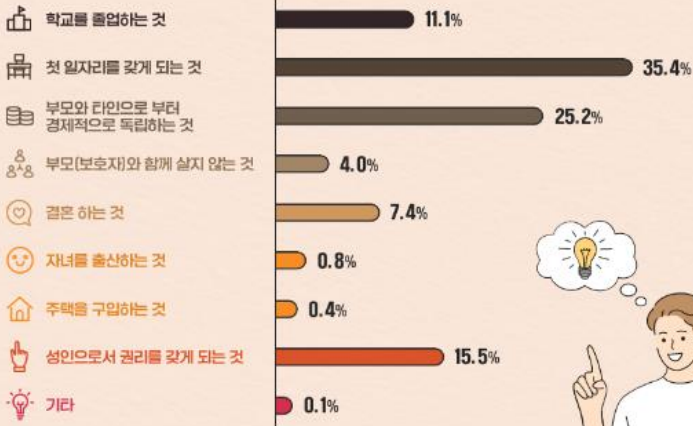


사회 첫 출발, 첫 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

- ✓ **조사 방법** : 개별 방문면접 조사 TAPI (Tablet pc-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)
- ✓ **조사 대상** : 만 18세 ~ 34세 일반 국민 2,041명

Q. 여러분이 생각하는 **사회 첫 출발**은 무엇인가요?

청년들이 생각하는 '**사회 첫 출발**'의 의미



이 밖에도 **성별, 연령**에 따라
사회 첫 출발의 인식이 달랐습니다.

성별 사회 첫 출발 주요 인식



결혼하는 것



성인으로서
권리를 갖게 되는 것

연령별 사회 첫 출발 주요 인식



18~19세

경제적으로
독립하는 것



20대 초반

성인으로서
권리를 갖는 것



20대 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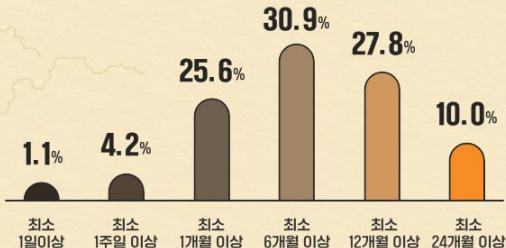
첫 일자리를
갖게 되는 것



30대 후반

결혼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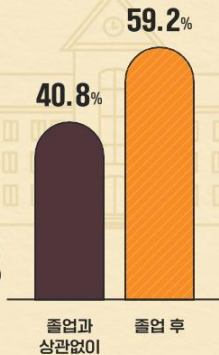
Q.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 무엇인가요?



[청년들이 첫 일자리로 생각하는 근로기간]

청년들은 최소 6개월 이상,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 일한 경험을 첫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

학교 졸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
전체 응답자의 59.2%가 졸업 후 가진 일자리가
첫 일자리라고 답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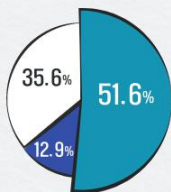
[학교 졸업 여부]

Q. 청년들은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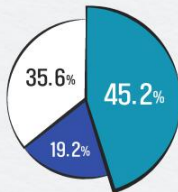
국제노동기구(ILO)는 학교·직업 이행을
일반적 이행과 엄격한 이행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는데요.



조사결과,
 청년 중 정규직이거나 **만족스러운 일자리**로의 이행은
51.6%로 절반 정도에 그쳤으며, **관심은 일자리**로의 이행 비율은
45.2%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

일반적 이행



엄격한 이행

● 이행완료 ● 이행중 ○ 이행 미시작

① 이행완료

[정규직 이행, 계약직이지만 만족스러운 직업 이행, 비임금으로 만족스러운 이행]

② 이행 중(실업 상태, 계약직이면서 불만족스러운 직업 이행)

③ 이행 미시작(재학 상태,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)

무슨 일이든 **첫 시작**은 두근거리고 설레기 마련입니다.
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**희망**을 품을 수 있도록,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실효성 높은 정책연구를 앞으로도
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.

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1: 일자리
김기현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선임연구위원)